은행

Sector Issue Brief 2025. 08. 28

7월 가중평균금리 동향: NIM 하락압력 4Q 확대 예상

Check Point

- 신규 예대금리차 반등세 지속
- 가계대출 규제로 가산금리 상승
- 금리인하와 조달금리 하락 폭 둔화로 3Q 보다는 4Q 에 NIM 하락압력 가중

| Analyst **전배승** | bsjun@ls-sec.co.kr

신규 주담대 금리 반등추세 지속. 잔액 예대금리차는 반락

▶ 2025년 7월 중 예금은행 신규 예대금리차는 1.55%p(총대출-저축성수신)로 6월 대비 1bp 반등하며 반등추세를 이어감.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가 각각 전월대비 3bp, 4bp 하락한 영향. 대출금리에 비해 수신금리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나는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7월 신규 기업대출 금리는 4.04%로 6월 큰 폭의 하락(-10bp) 이후 7월에도 2bp 추가 하락함.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한 영향. 신규 가계대출 금리의 경우 6월 -5bp 이후 7월 -1bp에 그쳐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크지 않음. 특히 6월에 이어 7월 중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등세를 이어갔으며, 전월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신용대출 금리 또한 반등. 이는 6/27 대책 이후 하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 50% 감축조치에 기인

▶ 은행수지에 보다 유의미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총대출-총수신)의 경우 6월 1bp 상승하며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으나, 7월 들어서는 2bp 반락. 총수신금리가 3bp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가 5bp 하락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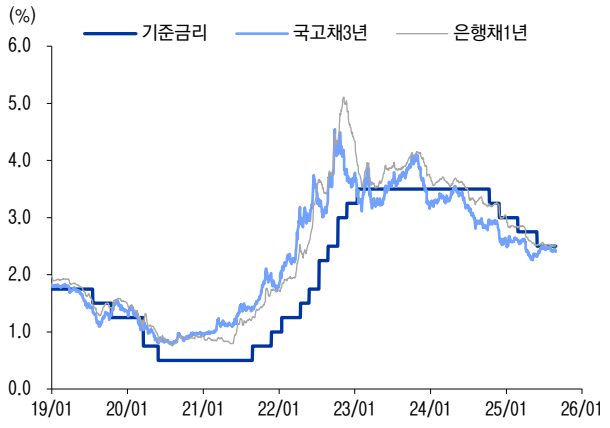
▶ 신규 저축성수신 금리의 경우 7월 중 2.51%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7월 신규 및 잔액 코픽스 금리는 각각 3bp, 7bp 하락해 은행권 조달비용 감소추세 지속

3분기보다 4분기에 NIM 하락압력 커질 듯

▶ 8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으나 연내 1~2차례 추가 금리인하 예상되어 NIM 축소는 불가피. 하지만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과 위험가중자산 관리기조가 병행되면서 대출금리 하락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신규 가계대출 가산금리는 이미 23년초 수준까지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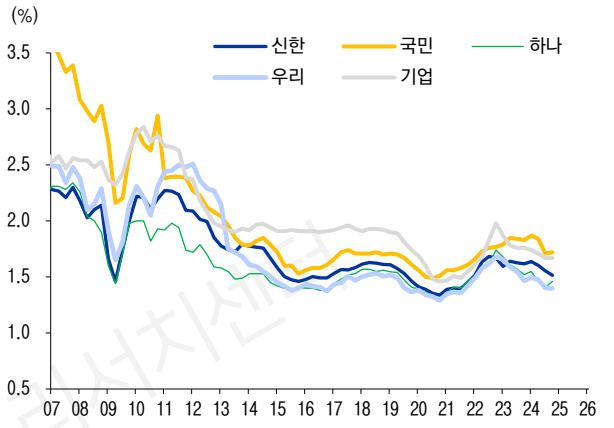
▶ 부동산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금리인하 시기가 지연되고 조달금리 하락영향이 이어지면서 3분기 NIM은 2분기에 이어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하지만 4분기로 가면서 금리인하 영향이 대출금리에 반영되고, 예금금리 리프라이싱 효과가 점차 축소되면서 NIM 하락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 3분기 보다는 4분기의 NIM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날 전망

그림1 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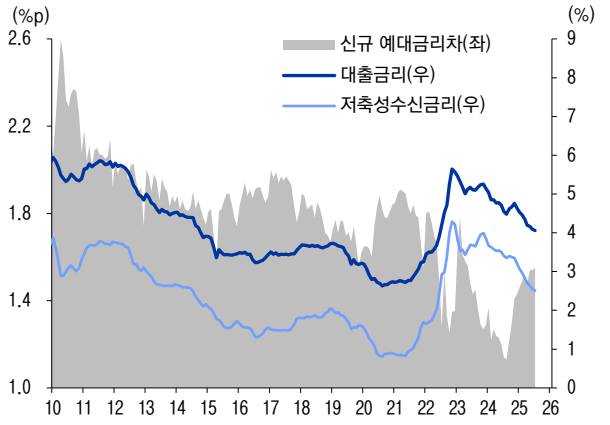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은행별 분기 NI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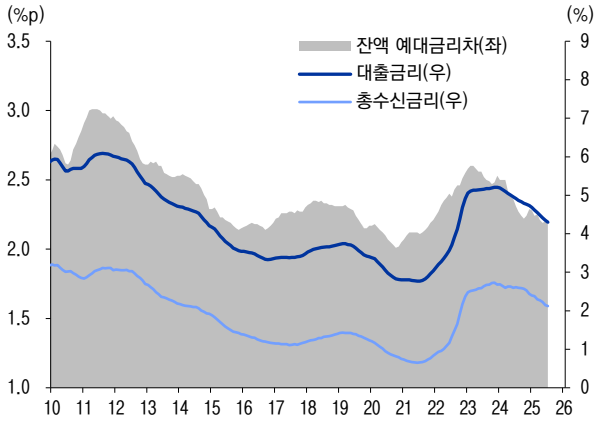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그림3 신규 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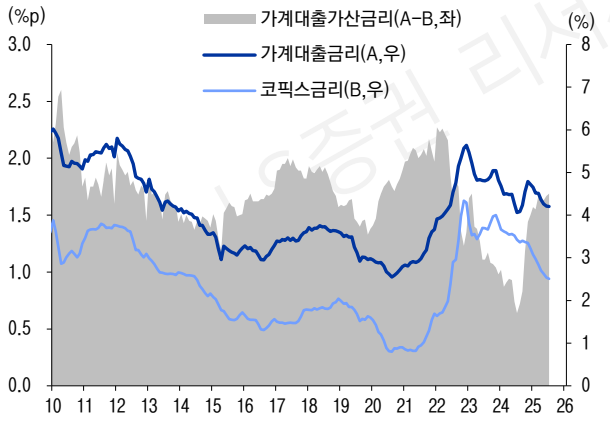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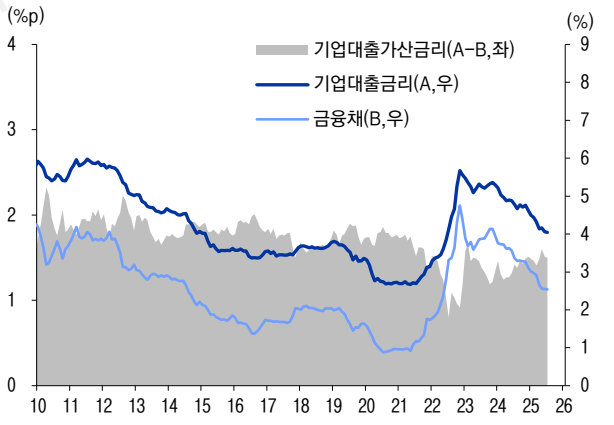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가계대출 가산금리(신규취급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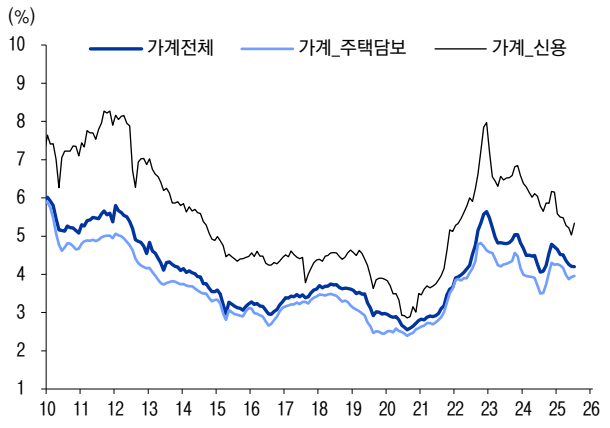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기업대출 가산금리(신규취급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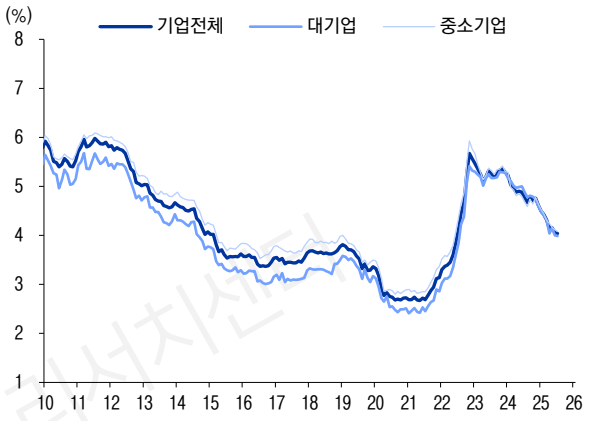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가계대출 부문별 금리(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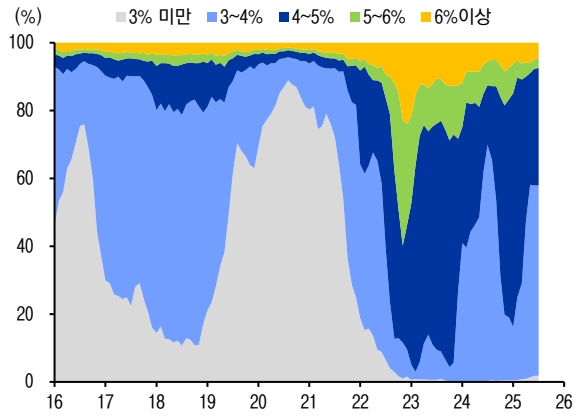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기업대출 부문별 금리(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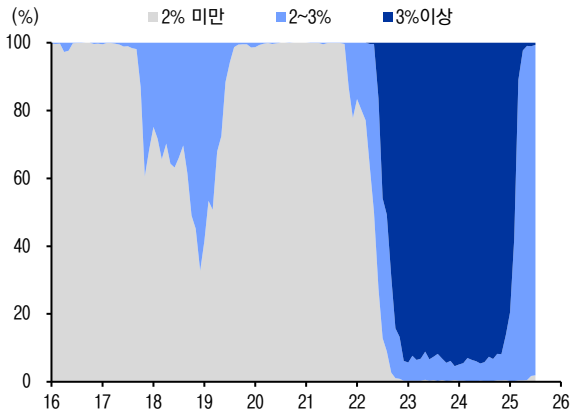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가계대출 금리별 비중(신규취급액)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정기예금 금리별 비중(신규취급액)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89.2% 10.8%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4. 07. 01 ~ 2025. 0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